

부활 제 5 주일

기도서 P 295 A해

제1독서(사 도 6, 1-7)
제2독서(베드 전 2, 4-9)
복 음(요 한 14, 1-12)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 전주교구
편집인 사 목 국
인쇄처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길

서 용 복 신부

오늘 복음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장 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막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래지 않아 자기들을 떠날것을 예감하면서 염려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인생은 한 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상은 비단 성세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사실 동서고금 모든 지식인 지혜있는 사람 어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양에도 옛날부터 “인생여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행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생이 가는 길이란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면 인생이 가는 길은 일방통행입니다. 그길은 한번가고 다시 못돌아오는 일방통행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갈길을 바로 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6 25 사변때 북한에서 피난하여 남한에 오신분들이 많지만 북한에서 올때에 후 길을 잘못들어 고생을 많이하신분들도 있고 어떤분들은 길을 잘못들어 공산당에게 붙잡혀 오지 못한 동포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있습니다. 사실 인생행로에서 길을 잃어서 어떤이는 사상적으로 길을 잃고 경제적으로 길을 잃고 사회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길을 잘못들어서 큰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어떤때는 가정이 파탄되고 갖은 비극이 연출되며 일생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국 각 교도소에는 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인생길을 잘못들어서 그곳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소년원에는 많은 불량 소년소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길을 잘못들어서 그런곳에 가게됩니다. 왜 젊은 부부가 가정법원을 찾아 다니게 됩니까? 둘 가운데 한분이 혹은 두분이 길을 잘못들은 까닭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문의 사회면을 메우는 여러가지 범죄 사건과 자살소동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회 우리 동포들이 길을 잘못들은 까닭입니다. 한번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의 참되고 옳은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바로 길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남원 천주교회 주임신부>



누가 폭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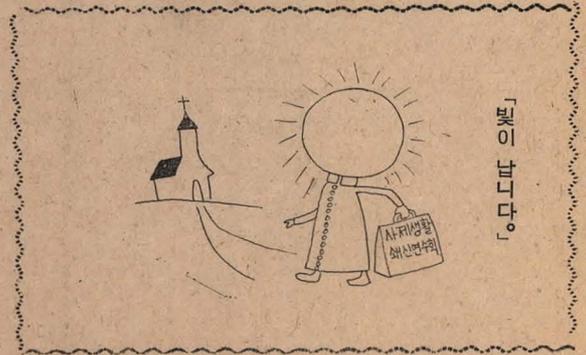
북 아일랜드의 사태에 대한 보도를 보면, <폭동> 내지는 <폭도>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4백년이상 계속되고 있는 분쟁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충분하게 있을 터인데, 그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그것이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에서 발달되었다면, 그러한 표현을 함부로 쓸수는 없을 것이다.

1929년 11월 3일, 일제치하에서 일어났던 광주학생사건을 당시의 신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광주교보 중학생 중물사건/전남경찰 총동원, 철야하며 엄중 경계/결거된 심여명은 엄중 취조중이요, 두 학교는 사흘동안 수업을 정지해/쌍방 기세 의연 협약/시가는 완전한 계약...」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착취기관인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을 파괴하려고 폭탄을 던진 사건을 「백주 돌발한 근래 초유의 대사건」이라고 신문은 보도하며, 독립운동가 나석주의 사진을 2단크기로 실었다. 또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일본 경관 여터명을 죽게한 사건보도에도, 독립운동가 김상옥의 사진을 무려 4단크기로 실고 있다.

위의 사진들이 일본인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장하고 거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참히 안중근 의사를 살인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비록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칭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폭동> 이라함은 「내란까지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치안상태를 어지럽게 하는 정도에까지 달한 집단적인 폭력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태만으로 폭동이라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또한, <폭도>라 함은 「(방향성 없이 균중심리에 휩쓸려) 폭동을 일으켰거나, 또는 폭동에 가담한 자들의 무리」를 일컫음이니, 잘 분별해서 표현해야 한다.

숲 정 이 산책





「현대인에게 말씀하시나?」

있는자와 없는자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그 사이가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게 뻔한 이치다. 얼마전 「버림받은 이들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마더테레사 수녀가 예의 바르고 인정많은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은 참으로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알고 있는가?」 「그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물론 이 나라는 복이 있어선지 굶어죽는 사람은 없다. 아프리카 대륙의 작대기 같이 메말라 굶어죽는 사람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어느곳에서는 부자집의 애완동물이 인간이 누려야 할 부귀(?)를 받으며 산다.

그녀는 「굶주림은 먹을것에 대한 굶주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벗음은 옷을 걸치지 못한 혈벗음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굶주림과 인간의 존엄성이 벗겨진 상태의 혈벗음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역설 했다.

낙태행위에 대해서는 「오늘날 태어나지도 않은 많은 어린아기들이 모태에서부터 임신중절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실은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자 죄악」이라고 지적한 테레사수녀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창조된 생명을 어머니 자신이 죽이는 낙태는 분명한 살인행위」라고 못박았다.

사랑이 머무는 가정이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것이라고 말한 수녀는 「만일 가정에서 진실로 사랑할줄 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것 처럼 우리도 다른이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더 테레사수녀의 방한에서 우리는 몇가지의 교훈을 얻었다.

첫째,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며 가슴속에 자신을 베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다. 시간과 피로움을 할애하면 서도 그녀를 만나려는 인파와, 화면과 지면을 통해 감명을 받는 모습에서 말이다. 둘째, 크리스찬은 넓은 안목과 더불어 가까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하고 버림받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푼것이 곧 내게 배푼것」이라고 말한 수녀는 「우리가 기도하면 믿게되고 믿으면 사랑하게 되며 사랑하면 봉사할 수 있을 것이 다」고 말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 피격

5월 14일 0시 20분 베드로 광장에서 순례자들과의 만남중에 피한들의 총격으로 가슴과 배에 3발의 총상을 입으셨으나 총알 제거 후 치료중이시다.

우리 모두 교황의 쾌유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자.

교리상식

「聖 油」란?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유를 바르는 의식이 많이 있다. 기름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여질 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으로 보아 인간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많은 원시종교에서도 기름을 종교의식에 사용한 흔적이 있다.

기름은 우리에게 건강을 위한 충분한 영양가를 주고 상처를 치료하는데 효과를 준다. 그리고 기계에다 기름을 치면 기계는 더욱 원활하게 작동되고 또 기름은 부패를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기름의 역할은 곧 우리 신앙생활을 통한 하느님의 영상의 관계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신앙을 항구하는데 은혜를 구하는 좋은 종교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성유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크리스마 성유—올리브 기름에다 향유를 섞어서 만들어진 기름인데 영세예절때 세례후 사용되고 견진성사와 주교서품때 사용된다. 둘째, 병자의 성유—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된 성유로 병자성사때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도 야고보의 말씀에 따른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야고보 5, 14) 이 성유는 성당중을 축성할 때에도 사용된다. 셋째, 성세 성유—병자성유와 같이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된 성유인데 영세식때 세례전에 영세자들에게 바르는 성유이다. 그리고 사제서품이나 제단이나 제왕들이 축성때 사용된다.

이상의 세가지 성유는 매년 성목요일 모든 사제단과 함께 주교좌대성당에서 주교가 축성한다.

「제자들은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마르코 6, 13)

(가톨릭신문 1, 254호 박도식 신부 글중에서)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맥그리거
MCGREGOR



버킹엄
Buckingham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유 율 리 안 나

□이전 안내

금·은·보석·시계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옆(배지여과 입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④4988

□표구 일 절
□서화 매 매

윤 표 구 사

전주시 중앙동 1가 48
(다가동 파출소 앞)
윤 병 훈(아오스님)
전화 ④ 6 4 4 5

레지오 마리에 창설 60주년 및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에 창설 25주년 경축대회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뱀의 머리를 바수고 하느님 나라 건설을 하는 용맹스러운
 군사로서의 충성의 서약을,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들과 모든 신자들과 함께 성모
 님께 바칩시다.

- 일시: 1981년 5월 23일(토) 10시
- 장소: 전주 해성중·고등학교 강당
- 주최: 전주교 전주교구 표미시움
- 후원: 광주 세나투스
- 제 1부: 10시 경축행사
- 제 2부: 11시 미사
(전주교구 사제단 공동집전)
- 제 3부: 13시 경연대회(우리아벨 특기자랑)

※ 레지오 단원은 물론 전교우 참석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모성월

어 머 니

숲으로 뻗어있는 무지개를 따라
 어머니가 저에게 오시던 날은
 눈 아리도록 빛나는 천사의 노래로
 저의 가슴은 수줍음 처럼 빨갛간 진주 였습니다.

어머니!
 왜 내가 당신 앞에 왔는지 묻지마세요
 그리고, 왜 당신이 저희를 사랑하시는지도 말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싶으니까요.

어머니!
 창조주의 고동치는 숨결이 들리십니까?
 앙상한 가지사이로 살얼음은 스치고
 그만 혼풍에 산과 들이 함박 꽃을 피웠습니다.
 조록빛 대지와 함께 오는 날

어머니
 분향같이 오르는 저의 기도가 들리십니까?
 이젠 아들이 드리는 빨갛간 장미꽃을 받으세요
 아들이 소망과 통회와 보속이 그리고 사랑이 담겨진
 티끌듯이 빨갛간 장미꽃을 말이에요
 이 밤 두 손 모아 드리는 저의 기도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어머니!
 왜 내가 당신앞에 왔는지
 왜 기도를 드리는지
 왜 떠나는지 묻지마세요.
 그리고,
 왜 당신이 저희를 사랑 하시는지도 말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싶으니까요.

-남원- 박 창 순(문도)

요십이 (406) 김병오

미국현직대통령이
 낙선하더니...



프랑스도
 현직 대통령이
 낙선되고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됐구나



미국과 프랑스는
 유신헌법이
 없는거보다



광고 신청은 월요일까지
 ③ 5098로

문교부(文敎部)가 인정한
 유일(唯一)한 보급기관!
 <사회 1074-690>

책(冊)을 신속·정확히 읽는
속독법(速讀法) 지도

- ※ 회원 모집
 초·중·고·대 학생, 일반
- ※ 지회 운영자 모집

사단법인(社團法人)
 한국독서능력개발 연구회
 전북지사(성모병원 3층)
 ☎ 6-4567

조 윤 회(베드로)

전기 온수기 가스렌지 및 시설
 가스 온수기 각종 씽크
 백 폼 표 씽크 주방

(東南綜合 싱크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金 樂 均(요셉)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약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야간 ⑥ 0496
 金 樂 均(요셉)

르 네 상 스

비데오(V. T. R) 음악 감상실

음악 애호가들께 희소식!!
 음악 가족을 모집합니다

전주 중앙동 1가 (낙원가주 앞)
 신호루길 삼익피아노 3층 ☎ ②1764
 배 세시리아·송 발라바(심섭)



- 레지오 마리에 창설 25주년 기념 경축대회
 - ① 준비위원회
 - 일시 : 1981년 5월 17일 오후 5시
 - 장소 : 전동성당 사제관 2층
 - 대상 : 준비위원 전원
 - ② 기념대회 : 본지 3년 창조
- 사제양성 후원 적금 집계하여 교구청으로 보내주세요

(중앙)

전화 ③651번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호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김병구

1. 사제생활 새신 집중교육 : 3주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영육간에 협조와 기도 감사했습니다
2. 성모회 월례회 : 공식미사후 양로원
3. 성지순례 : 5월 20일 오전 6시30분 출발
장소-베른성지, 주최-성심부녀회·어머니합창단
4. 고등학생 체육대회 : 5월 17일 오전 10시
해성중·고 운동장 학생 전원 참석 바람
5. 견진성사 신청 : 5월 23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6. 사제양성을 위한 돼지저금통. 아직 못내신분 잊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7. 레지오 마리아 창설 25주년 기념행사 : 23일 10시
해성중고 강당, 레지오단원, 협조단원 전원참가바람

(노충동)

전화 ⑦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환영 : 신부님들께서 3주동안의 피정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적인 협조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제17차 성령세미나 : 내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9시30분까지 (직장인들의 많은 참여 바람)
 3. 은혜의 밤 : 29일(금) 오후 7시30분
세미나를 받으신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사순절 저금통 불현 : 사제양성 후원 기금의 저금통을 오늘까지 불현하시기 바랍니다
 5.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 갈라디아서, 에페소서, 필립비서, 골로사이서 전체
 6.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부터~4시까지
 7. 성 가정회 모임 : 매주(수) 저녁미사후
 8. 자모회 월례회 : 20일(수) 오후 2시,
주일학교 자모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10,77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유양
 보좌 신부 박희상
 사도 회장 양명열

1.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분 신부님 영적으로 많은 발전을.....
 2. 반석회 모임 : 한인주씨 형제
26일 저녁 8시 공원앞 동덕만
 3. 오늘 중·고생 체육대회 : 9시 미사후
많은 참여 있기를 덕진중학교에서
 4. 주일학교 어린이 많이 보내주세요
2시-교리, 3시-미사
 5. 성모의 밤 행사 : 30일 저녁 8시
단체별로 화분이나 꽃 봉헌 바람
 6.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 토요일 오전 11시
많은 참여 있기를.....
 7. 분당 야외미사 : 31일-승천 대축일 행사
도시락 지참하고 9시까지 성당에 집합, 단체 출발
장소-당일발표
- 지난주 봉헌금 : 275,690원

(복자)

전화 ③5238번
 주임 신부 김희남
 보좌 신부 김희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신부님들 3주간의 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3주간 매일 말씀의 전례(공소예절)에 수고해 주신 전례부에 감사드립니다
3. 주일학교 소중 : 17일 오늘 오전 9시
장소-덕진 조경단, 도시락과 차비 120원 지참
4. 사제양성 돼지저금통을 오늘까지 사무실에 내주세요
(성명·주소를 적어서 넣어주세요)
5.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신분은 사무실에 연락 바람

6. 예비자 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후 허메레사씨 지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후 보좌신부님
- 지난주 봉헌금 : 240,070원 성소주일 헌금 : 25,855원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축! 환영 : 사제생활 집중세미나 마치고 오시는 신부님께 기쁨의 인사드립니다
 2. 할머니회 : 공식미사 후
 3. 예비자교리 : 6월 7일 공식미사 후
 4. 가정방문 동안 반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피정에 들어가시는 수녀님께 많은 기도 바랍니다
 6. 사제양성 저금통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7. 5월 17일 즐거운 주일학교 소풍 있습니다
 8.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 김나섭 ② 김한기
신자들의 기도-강태호
- 지난주 봉헌금 : 138,735원 교무금 : 92,900원

(순정이)

전화 ⑦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제생활 새신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2.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후
 3. 청년회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각 회원들께서는 동료 한분씩 모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첫 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6시 : 구유치원에 모여주세요(부도님들께서는 귀영등이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5. 매일 오후 8시 성모성월 있으니 참석해주세요
 6. 차주 전례담당 : 해설-이기호,
독서-이동선·양병철, 기도-이철수
 7. 사제양성 저금통 : 24일 주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48,655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병호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 단합대회 : 5월 21일 부곡운찬 1박 2일
 2. 어머니 성가대 : 성 가정회 단합대회 : 5월 18일
장소-현충사·수덕사
 3. 피미시움 : 오늘 오후 2시, 간부회합 오후 1시
 4. 성화회 : 공식미사후
 5. 중·고 교리 : 8시 30분 미사후에 있음
 6. 양위 신부님 연수회 끝나고 건강히 잘 돌아오셨음
 7. 구역 회합 일정
동교동 2구-5월 19일 오전 10시(곽금 마리아),
경원동-5월 19일 오후 2시(박춘선 레지나)④284,
서교동 2구-20일 오후 3시(오금순 세시리아)⑦7092
동완산동 1가-20일 오후 8시(배양길 마리아)④4476
동교동 4구-21일 오후 2시(오화영 아오스님)⑧608
동완산동 2구-21일 오후 8시(김정숙 바르니가)⑤056
서교동 1구-22일 오후 8시(유숙자 수산나)⑤5677
홍남동 4구-22일 오후 2시(성낙인 뿌리나)⑨915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최병래 ②김창신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이영태 ②오공천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이승호 ②변해석
- 지난주 봉헌금 : 391,69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주일학교 학생미사 : 오후 3시
 2. 주일학교(국민학교 남·녀) 교리 : 오후 4시
 3. 18일부터(월·수요일) 미사시간은 오전 6시로 변경
 4. 79, 80년도 교무금 미납자는 속히 완납 바람
 5. 수녀원 신축기금 미납자는 속히 완납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90,745원 · 교무금 : 88,000원

성모의 밤 행사 안내

1981년 5월 30일 밤 7시 30분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마리아여!

기뻐 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가장 복되시도다.

제1부 : 미사 봉헌

제2부 : 성모의 밤 8시 30분

(1) 1. 개회성가 (84번 성모의 성월)

후렴 : 성모의 성월이요 제일 좋은 시절 사랑하온 성모를 찬미 할지어다.

1번 : 가장 고운 꽃으로 성전을 꾸미고 성모께 노래하며 자린 할지어다.

2번 : 옥창한 봄철 같이 상쾌할때 있네 성모를 앙모하니 더욱 상쾌하다.

(2) 촛불 집회

(3) 꽃 - 축분 - 초 봉헌 - 각단체별 - 개인별

(4) 성가 72번 - 네머리를 꾸미오리

(1) 네머리를 꾸미오리 장미와목 백합꽃도 유향 연기 피우오리
마리아여 네 주위에

(2) 너를 찬미 하는 무리 촛불들을 높이들고 마리아여 네 발아래
삼가꿨어 있나이다.

(3) 직자들목 가슴에도 기쁜노래 흘러나고 그 마음은 너를다라
높이 올라 가나이다.

(4) 셋별이여 우리마음 그빛으로 비춰주소 주께 봉헌 하옵시며
주께 봉헌 하옵소서

(5) 성모님께 드리는 축시

주일학교 아동 - 중고학생 - 교리교사목

(15) 1915년 1월 15일

- 1. 자모신 마리아 가복하소서 금세복 주제의 영광케 하되 나의
- 사안 해의 좌하게 하사 네 몸수에 화사하게 하소서
- 2. 자모신 마리아 가복하소서 아멘 네 수를 너의 복사 모든 집과
- 함께 복하소서 금세복 주제의 영광 하소서

(14) 1915년 1월 15일

- 1. 우리는 신아모서 주임미사에 다음 영성의 참어하고 주임을
- 거룩히 지낸것을 심모님께 양수한다.
- 2. 우리는 폐지모 불응에 진급하여 하느님 나라 인선에 복사의
- 노를 하기 모 심모님께 양수한다.
- 3. 우리는 하느님의 불행에 대한 감사로 하느님의 교령
- 사임을 들은 몸진직인 감사에 인행의 양음것을 심모님께 양수한다.

(13) 1915년 1월 15일

(12) 1915년 1월 15일

(11) 1915년 1월 15일

(10) 1915년 1월 15일

간주마다 기도 - 8안행 - 부녀회 - 레지오 - 학생회 - 주임학교아들 (준으로)

(9) 복수의 기도 - 간주마다 1월 15일 - 아베마리아 - 아베아네 - 아베마리아

(8) 신자들의 기도 - 사도행 - 1년 - 신자 - 1년 - 1년 (준으로)

(7) 1915년 1월 15일

(6) 독서 (복가복은 1월 46일 - 56일) 마리아모 노래 124페이지